

수험생 80% ‘쉬운 수능’ 반대

변별력 낮아 치열한 눈치작전 부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10명 중 8명은 ‘물수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능 EBS 교재 70% 연계’도 62.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질수록 치열해지는 눈치작전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웨이중앙교육은 최근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1203명을 대상으로 ‘수능개선위원회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난이도와 같은 쉬운 수능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83.6%가 ‘쉬운 수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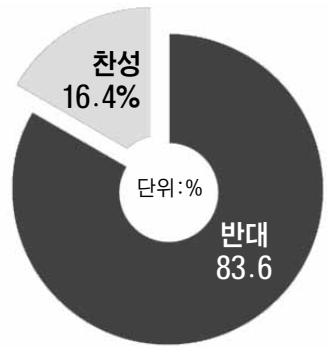
성적대별로 보면 상위권 학생은 81.3%, 중위권은 85.4%, 하위권은 63.6%가 쉬운 수능에 반대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쉬운 수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적대가 중위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위권 수험생이 상위권보다 쉬운 수능에 덜 반대하는 것은 하위권일수록 수능의 난이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과 EBS교재 연계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반대했다.

■ 지난해 수험생들 ‘쉬운수능’ 어떻게 생각하나

□ 전체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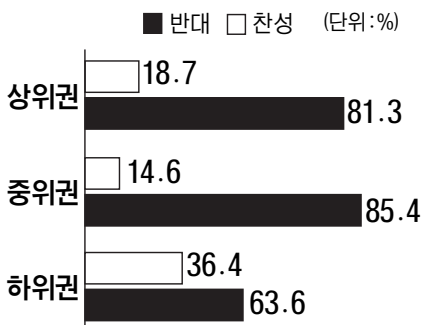


‘수능과 EBS 교재 70% 연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영어 지문 그대로 베끼기와 같은 연계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71.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영어 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54.8%가 반대했다. 찬성은 45.2%였다.

‘수능 출제위원에 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72.1%가 찬성, 27.9%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미국 SAT처럼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도입’에 관해서는 반대가 50.5%, 찬성이 49.5%로 찬·반 비율이 비슷했다.

□ 성적별



〈자료: 유웨이 중앙교육〉

‘수능 2회 시행’에 대해서는 67.4%가 찬성했다. 반대는 32.6%였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미래를 결정짓는 방식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바람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평가이사는 “수험생들이 생각하기에 이번 수능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진 데는 수능과 EBS 연계율이 지나치게 높았고 영어 지문 베끼기 식의 연계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수능 연계 방식 및 연계율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대, 프랑스서 문화리더 양성 해외문화체험

학생 32명 7일간 파리 일대 탐방

루브르 박물관 견학 등 안목 높여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2014학년도 ‘함께’형 문화 리더를 선발해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조선대는 학생들이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해 창의적,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능력과 다양한 안목을 가진 융·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한 차례 문화리더를 선발해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제5기는 CU-SP프로그램에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가 200점(1학년), 300점(2학년), 450점(3, 4학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 면접을 거쳐 총 32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예술과 문화의 도시, 파리 ~ 고흐, 모네, 밀레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프랑스 파리 일대를 탐방한다.

상제리제 거리, 개신문,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라데팡스, 노트르담 사원, 퐁피두 센터를 통해 파리의 정취를 느끼고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등의 미술관 투어와 고흐 형제의 무덤, 밀레 생가와 작품 ‘만종’의 배경지 등을 견학한다.

특히 이번 해외문화체험에는 시각장애 만학도인

박동해 학생(특수교육과 3)이 지원해 함께 한다.

학생들은 ‘나는 이번 해외문화체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리포트와 문화체험 포트폴리오를 개별 과제로 제출하고 파리 일대의 문화 유적지와 역사 관련, 생활 환경과 에티켓 등을 주제로 조별 과제를 발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문화체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조선대는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특성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위해 CU-SP 시스템과 문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마일리지 제도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이 능동적으로 광범위한 문화의 향유, 공유, 창조 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서 축적된 역량에 대해 일정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과해 문화탐방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도입한 문화마일리지 제도는 핵심소양, 봉사, 독서, 취업, 국제화, 자기관리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학생들이 창의적,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축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CU-SP(Student Portfolio) 시스템에 저장하면 개별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총괄 점수를 기준으로 문화마일리지 장학금을 수여하고 문화리더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남도문화사업단,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문화교류

5일간 주요 아시아 문화재 탐방

호남대학교 남도문화콘텐츠 양성사업단(단장 정행)은 최근 5일간 말레이시아에서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문화와 인도문화, 말레이인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말레이시아의 문화재 탐방을 통해 범아시아적 인문학 소양

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단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18명의 학생들에게 숙식을 비롯한 경비 전액을 지원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기간동안 호남대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 내 현지인 재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클럽(GNC) 학생들과 함께, 역사적으

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도시 말라카와 행정 도시인 푸트라자야를 방문해 주요 아시아 문화재를 탐방하고, 말레이시아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 현지 학생들과 그룹별 협동게임과 남도문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지는 등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스포츠산업창업센터 문체부 지원사업 1위

오충호씨 ‘투명카누 IN 바다생태 체험’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개발원의 보육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1위를 차지했다.

조선대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스포츠개발원 보육사업 지원대상자 10명중 ‘투명카누 IN 바다생태 체험’을 발표한 오충호씨가 총점 224점으로 발표자 18명중 1순위로 선정됐다. 또 ‘광주호 수상레저 스포츠센터’를 발표한 김미현씨(해양스포츠팀)가 총점 215점으로 3위로 선정되는 등 조선대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2명이 최종 10명에 포함돼 보육사업 지원을 받게됐다.

한국스포츠개발원 보육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오충호씨와 김미현씨는 조선대 센터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해 보육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오충호씨의 ‘투명카누 IN 바다생태 체험’은 여수 개도에서 투명카누를 통해 바다생태체험을 하는 아이템으로 승어·장어 낚시체험과 비렁길 체험,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섬마을 이야기 나눔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김미현씨의 ‘광주호 수상레저 스포츠센터’는 광주와 인접한 광주호에 래프팅과 딩기요트, 카약 등을 통한 남도 해양레저교육 원스톱 타운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워크숍·멘토링

우수기업 초청 경영 노하우 등 전수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들의 경영혁신을 위해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2014 하반기 창업보육기업 임직원 경영혁신 1차 워크숍 및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예비 창업자와 입주·졸업 창업보육기업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환의 장으로

약 8시간동안 진행됐다.

식품업체인 현대에프앤비 와 아이밀, 브레인노크, 에파타가 각각 자신들의 경영 노하우를 공개했고 ‘2014 창업박람회’ 포상기업인 도전시스템과 코엘소프트는 회사 운영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제이엠피(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 플러스원(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 예코비(중소기업청 R&D사업)는 각각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